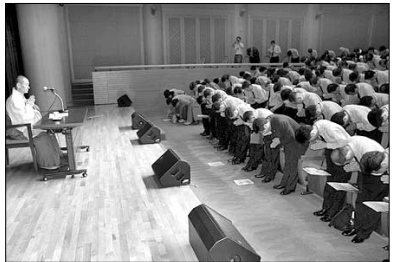


# 부처님법 배우니 웃음 싹고 씩씩~

## 대구 운불련, 서울로 '청법(聽法) 나들이'

“행님! 법문 시간에 졸면 우지합니까?”  
“안 잤다카이. 와 그라는데.”  
“뭘라고 말씀하시던데요? 말해보이소!”  
“...”  
주황색 와이셔츠에 검정색 바지를 똑같이 입은 경상도 사나이들이 육신각신했다.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부지런히 서울 조계사에 올라와 놓고, 정작 중요한 시간에 졸았던 것이 영 못마땅한 눈치다.  
5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대구지역 회원 300여명이 서울 조계사로 '청법(聽法) 나들이'를 왔다.



대구운불련 회원들이 청법대사로 김로법을 청하고 있다.

새벽 6시에 대구를 출발, 장장 4시간을 넘게 6대의 대형버스에 몸을 싣고 이곳으로 달려왔다. 전날인 23일에는 230명이 왔다고, 다음날인 25일엔 200여명이 청법 나들이에 나선다.

**# 3일동안 새차례 나눠 상경**  
“텍스 3부제 법사, 이렇게 세 차례 나눠 올라 왔지. 우리 회원이 700명이 넘거든. 예. 회원 전부가 스님 말씀 들을까요 서울 왔서. 한 번 보이소. 조계사 경내가 주황색 물결로 넘실대지 않습니까?”  
대구운불련 회원 오철환(36)씨는 스스로 운전기사불자임을 뿌듯해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체 회원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면서 서울로 올라온 것 자체가 주목받을만 하다. 그럼, 대구운불련은 왜 대단위로 동거 상경 길에 올랐을까?  
“우리 운전기사불자들은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 아닌가요? 운불련 회원 하나 하나가 움직이는 작은 법당의 ‘주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일 년에 두 번씩 전국의 명산대찰을 찾아가 스님들의 고귀한 말씀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니까.”  
운불련 활동 3년차인 남형수(34·시현

씨)의 말에서 대구운불련이 서울 ‘청법’ 나들이에 나선 까닭을 알 수 있었다.  
사실 대구운불련은 지난 1986년 창립 이후, 매년 두 차례씩 전국의 조계종 교구본사, 삼보사찰, 오대 적멸보궁 등을 찾아 ‘청법’ 구도행을 해왔다. 그간 법을 청한 스님들만도 300여 분이 넘는다고 한다.  
“조계사 참배는 대구운불련에서는 처음이라. 개인적으로 30년 전, 조계사에 왔었는데, 지금 보니 억수로 변했네... 운전기사란 직업은, 육신대거나 잡생각을 내면, 곧바로 사고로 연결되네. 매년 이렇게 짙게 찾아가 스님 법문을 들으면, 그런 잡념이 말끔히 없어지네.”  
운불련 회원 중 총일점인 정부들(53)씨. 이번 청법 나들이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 # 법문 하나 놓칠라 비장한 눈빛

대구운불련 회원들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조계사를 1시간 넘게 둘러봤다. 삼삼오오 모여 향을 사르며 탑돌이를 하고, 경내 나무 벤치에 앉아 법담을 나누기도 했다. 특히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둘러보는 운불련 회원들의 얼굴에는 호뭇함이 묻어났다. 연신 조계사가 ‘한국불교의 심장’이란 말을 토해냈다.  
잠시 후, 회원들은 장소를 옮겨 기념관에서 조계종 포교연구소장 진행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덕 높으신 스승님, 사자좌에 오르사... 감로법을 주소서.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소서.”

청법의 발원이 간절했다. 재가불자로서, 운전기사로서 스님에게 올리는 청법은 남달랐다. 그래서일까? 회원들의 눈빛은 비장하기까지 했다. 법문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표정이었다.

“여러분들은 달리는 법당의 범주이시죠?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살아 날라야 제대로 신는 걸까요? ‘인사복덕(人施福德)’이라 했습니다. 사람에게 베푸는 보시가 제일 큰 복덕이라는 뜻이지요. 운전기사불자들은 사람을 실어 나르며, 그 분들에게 불법과 자비를 드러야 합니다. 그러려면, ‘대장경’을 실어 나르는 우직함 소처럼, 끊임없이 정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리의 포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지요?”



조계사가 주황색 와이셔츠 물결로 넘실었다. 사진은 법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한 대구 운불련 회원들.

### # '마음의 배가 팍 찡습니다'

50분간의 법문이 끝나자 회원들이 낮빛이 환해졌다.  
운불련 5년차인 김규동(53·길명)씨는 “마음의 배가 배부르다고 말했다.”  
“우직한 소처럼 수행하라”는 스님의 법문에 감명을 받았기에, 운전기사들은 하루 종일 차 안에서 생활하다보니, 늘 마음이 답답하지. 이렇게 스님 법문을 듣고 나니,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돼 기쁘네.”  
회원들은 법회를 끝내고, 하나둘씩 조계사를 나와 대형버스에 올랐다. 안거를 마친 수행자들이 만행을 떠나왔다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본래 자리로 떠나기 위해서였다. 운불련 회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 주황색 와이셔츠 운불련 ‘법복’을 입고서 말이다. 글·사진=김철우 기자



대구 운불련 회원들이 이경수 구도부 처장의 집전으로 청법가를 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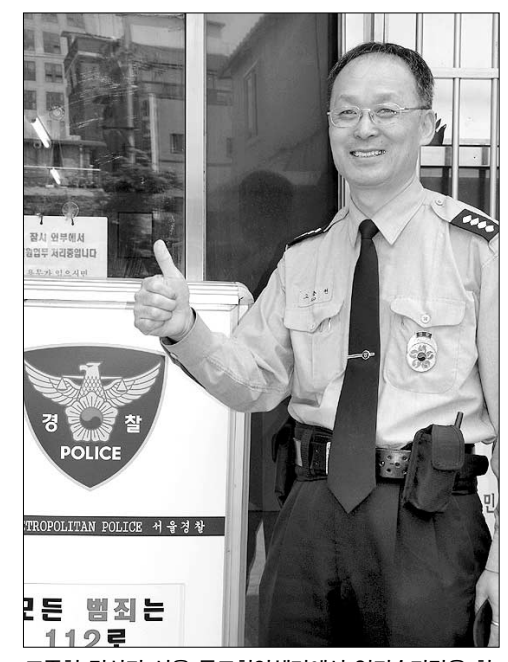
## 불자 운전기사 700여명 서울 조계사 순례

## 창립이후 사찰 돌며 300여회 청법 구도행

## ‘글 보시’로 하루의 행복 선물

해화경찰서 창신지구대 고중현 경사

블고든 경찰이든 딱히 해야할 일은 없었다. 우연히 시작했고, 그리고 그 길을 선택했다.  
서울 해화경찰서 창신지구대 고중현 경사(48). 경찰 생활 20년 끝에 ‘금당(金堂)’이란 법명을 받고부터 자신에게 갖든 부처님 집을 보았다고 한다. 또 어느 날 부처님이 불자경찰관이 되버린 자신을 보고서 스스로 대견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한다.



고중현 경사가 서울 동묘치안센터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호법선장'의 사원을 다지고 있다.

“불교는 왠지 기분을 좋게 했어요. 사실 전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아직도 찬불가보다 찬송가가 귀에 더 익숙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8년 전, 도봉경찰서에서 근무할 때, 동향의 한 스님을 만났죠. 그 때 들었던 스님의 말 한 마디가 기억에 생생해요. ‘구경만 다녔던 절, 이제는 공부하러 짚어 다니지!’”

고 경사는 그 길로 조계사 불교기초교리반에 들어갔다. 3개월간 수강하고, 곧장 2년 과정의 불교대학에 입학도 했다. 늦게 배운 도독일에 밤새는 줄 모르듯, 불교공부에 빠져들었다. 그러면서 욕심도 슬그머니 들기 시작했다. 2005년 10기 조계종 포교사 고시를 봤고, 탈락 합격을 하면서 서울 지방청불교회 총무까지 맡게 됐다.

“꿈에도 직불자가 되리라 생각지도 않았어요. 면발치에서 뒷집만 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불교의 맛을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경찰생활에 변화가 생겼어요. 피의자에게 욕망 지르던 말과 행동이 사라지더군요. 아무리 화가 나도 답답해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나 고 경사에게도 경찰업무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있었다. 형사기 등대 시절, 화염병과 최루탄이 날발하는 시위현장에서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하며 경찰로서 회의심을 가졌다.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너무

도 힘들게 했죠. 시간이 갈수록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황폐해져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경찰관 생활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공입증생’이란 말이 떠올랐어요.”

경찰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고충. 돌이켜보니, 문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기심이 원인이었다. 서로 같고도 대립하는 까닭을 불교에서 찾게 되니,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은 쉽게 찾게 됐다. 바로 기도였다. 3년 넘게 매일 천수다라니를 108번 읽고, 3천배를 6번씩이 회향한 것이 이때부터였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승진을 기도한 적이 없어요. 모든 증생들을 부처님 도량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고 기도했어. 증생이 편안해 부처님 편안하라는 유머가사의 가르침처럼 말이에요.”

고 경사는 올 초부터 또 다른 서원을 세웠다. 직장 내 포교다. 매일 동료 경찰 16명에게 메일을 보내고 있다. 경전이나 시에서 감명 깊게 읽은 글들을 모아 ‘글 보시’를 하고 있다. 동료 경찰관들이 기분 좋게 하루를 열게 하려는 고 경사. 그 소박한 마음에서 깊은 신심이 묻어났다. 글·사진=김철우 기자

## 행자(예비스님) 모 집

- ◆ 산중 분원인 감포선원(무문관)에서 수행함
- ◆ 문의 : 054)771-8350 / 011-881-9710(주지스님)
- ◆ 대구큰절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면 그것도 가능함
- ◆ 회주이신 우학스님 상좌됨
- ◆ 1인 1실, 민주적 교육, 수계 후 모든 교육비 지원

대한불교조계종 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 011-9852-0075 (총무스님)

## 제4기 불교의식 (범음·범패)학인모집

**초급과정 3개월**  
사물(목탁, 오령, 태징, 범고) 다루는 법도양식, 쇠승, 상단예불,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관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대비식 등(기초범음, 범패)

**고급과정 6개월**  
요점바라, 천수바라, 작법(나비춤), 사십구재, 예수재, 수륙재(전문적 범음·범패)

- ◆ 모집 : 수시모집
- ◆ 매주강의요일 : 수, 목 (오후 4시~6시)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수료 후 수료증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원광사 회장 겸 강주 김도진 회장  
한국불교범음회 의식교육원  
051)554-1518 / 011-849-0961

##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과정 ① 백진반 ② 사암침술반 ③ 즉효요법반
-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배교정법, 실습위주 강좌
- ▶ 개강 : 2006. 6. 7 (수·목요일 주·야간반)
- 토·일요일 : 사암도인 맥진법 강좌 (1개월 완성)
-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이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 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 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 부처님 당시 제자 500나한 불사 검 1000일 기도

오백나한 검 천일기도를 불사 받아 수도권 최고의 나한전(羅漢殿)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라한은 응공(應供), 응진(應眞), 무학(無學), 이악(離惡), 불생(不生)등으로 불리우며 성문(聲聞)을 가운데 최고의 성자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번뇌를 완전히 끊어 열반을 성취한 성자를 일컬으며 복덕이 구족하고 신통 자재하여 모시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네 인생, 사람 몸 받기 힘들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나한 불사도 이 생애 한번 인연 닿기 힘든 불사입니다. 어렵게 만난 인연을 소중히 성취하시고 그 공덕으로 가정의 화목과 건강, 사업성취, 소원성취, 학업성취 나아가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권하안마음선원 덕봉합창  
031)707-0108  
분당선 이매역 1번출구 sk주유소 옆 도로보 5분거리